

“우린 희망과 자유 노래하는 삼점일사”

오월창작가요제 대상 '삼점일사'

2021년 싱글 '도미노'로 데뷔
청춘들에 음악으로 응원 메시지
수상곡 '돈키호테' 민주화 환기
자유의 여정 기사단에 빛대

“도시는 이미 잠들었고/ 나 이곳의 돈키호테/
내 곁엔 산초와 로시난테//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어릴 적 나의 기사 돈키호테”(삼점일사 '돈키호테' 중에서)

세르반테스의 소설 속 기사 '돈키호테'는 라만차의 풍차를 거인이라 생각하고 무모하게 돌진했다. 세상은 그를 보고 어리석다며 손가락질했지만, '자유'를 꿈꾸며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은 생각할 거리를 남긴다.

1980년 5월 광주에도 수많은 '돈키호테'들이 있었다. 거대한 신군부의 압제에 저항하던 민주 열사들은 오늘날에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환기한다.

사단법인 오월음악이 주관하는 제1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가 최근 5·18민주광장에서 막을 내렸다. 본선에 총 8팀이 올라 경연곡·비경연곡 등을 각각 2곡씩 노래했다.

올해 대상의 영예는 삼인조 그룹 '삼점일사'가 안았다. 수상곡은 세상의 편견에 저항하고 자유를 희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 '돈키호테'. 삼점일사 세 멤버들을 각각 '돈키호테', '산초', '로시난테'에 빗대 기사단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 험난한 모험을 형상화한 작품이다"고 했다.

삼점일사 리더 김태강은 "때로 세상은 우리가 가는 길이 틀렸다고 부정한다.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이 예술이든, 민주화의 여정이든 저마다의 가치는 부정받곤 한다"며 "'돈키호테'는 삼점일사 세 멤버들을 각각 '돈키호테', '산초', '로시난테'에 빗대 기사단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 험난한 모험을 형상화한 작품이다"고 했다.

2021년 싱글 앨범 '도미노'로 데뷔한 삼점일사는 리더 김태강(드럼), 베이스리스트 김현우, 보컬 및 피아노 박상호로 이루어진 삼인조 남성 밴드다. 지난해 제2회 인디뮤직페스티벌에서 인디오타 루키부스 3위, M인디앨전에서 TOP10에 진출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제1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가 5·18민주광장에서 막을 내렸다. 사진은 이번 경연에서 대상을 받은 '삼점일사' 팀이 지난해 마포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장면. <삼점일사 제공>

삼점일사는 방황하는 동시대 청춘들에게 '희망'과 '자유'를 선사하는 음악적 색채를 지향한다.

“우리는 기사단 모두들 비켜라/(-)/수 많은 벽들이 우리를 막아도/우린 적들을 무찔러 위로 향해 간다”(‘활력기사단’ 중에서), “I say one two 춤을 춰/아무 생각 안 나게/지금 나와 나의 무대가 시작된다”(‘춤을 추자’ 중에서) 등 발표곡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특히 수상곡 '돈키호테'는 그루브 넘치는 베이스, 드럼, 보컬사운드의 합이 돋보이는 곡으로 이번 경연에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8회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정밀아, 제13회 금상 수상자 레드클라인이 축하 공연으로 경연 열기를 더했다.

한편 삼점일사 팀과 광주와의 인연도 궁금했다. 삼점일사는 지난해 '광주 버스킹월드컵', 광주예술의전당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진행 당시 광주를 처음 방문해 광주 아티스트들과 교류했다. 지역 예술가들과 로컬 푸드를 먹고 인디신 음악을 함께 감상하며 광주문화와 예술의 진가를 느꼈다.

수년 전부터 오월창작가요제에 대한 관심도 키워왔다. 가요제에 곡을 출품하려 했지만 5월에 대한 메시지와 작품성을 겸비한 적절한 곡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올해 비로소 광주정신과 접맥하는 곡 '돈키호테'를 완성해 대상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김 씨는 삼점일사의 음악적 지향점에 대해 “사회를 변화시키고 치유의 힘을 지닌 ‘예술의 선한 영향력’을 믿는 편”이라며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음악을 매개로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매개”라고 말했다.

김 씨는 팀명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도 “‘무한대’를 의미하는 숫자인 ‘파이’ (π·삼점일사)에 한계 없는 우리들의 음악적 가능성을 담았다”며 “한편으로 광주민주화운동과 자유, 청춘들이 목소리 등 다양한 주제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대에서 서서 따뜻하게 바라봐주던 광주 시민들의 눈빛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날의 광주’를 주제로 노래한다는 취지에 공감해서인지, 관객들이 따뜻한 미소와 호응을 보내줘 자신감 있게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제14회 오월창작가요제 금상은 풀잎이슬 팀의 '오월의 날', 은상은 허정혁의 '춧불이 켜지면'이 차지했다. 노을량의 '노래가 필요해'가 동상을 받았으며 장재상은 양산동 호랭이('My Love Highway'), 우나('지구별망?'), 은별밴드('그날을 피운다'), 골글('사랑하며 살아갑시다')이 수상했다.

오월창작가요제 본선에 입상한 8곡 음원은 오는 6월 중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빛고을기악대제전 종합대상에 김한성 씨

관악 부문...명인부 대상, 가야금병창 김유빈·현악 김소연 씨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가 주관하는 제23회 대한민국의빛고을기악대제전에서 지난 26일 김한성 씨(사진)가 관악(피리) 부문 명인부 종합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상금으로 1500만 원이 수여되며 부상으로 가야금, 아쟁, 해금(택1)을 지급한다.

서울 출신으로 추계예대 및 동 대학원에서 피리를 전공한 김 씨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 대놀이 전수조교 김성운을 사사했다. 청주시립국악단 상임단원 등으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제31회 대전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일반부 관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씨는 “지난해 ‘국악경연 대상’에 이어 올해 ‘대통령상’까지 연이어 받게 돼 의미가 더 깊다”며 “기악 연주자로서 실력을 인정받은 만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청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전통예술 활동을 펼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빛고을기악대제전은 국악·기악 명인을 배출하는 산실 역할을 자임해 왔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5~26일 양일간 광주시 남구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됐으며, 이밖에 도 명인부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야금병창 김유빈, 현악 부문의 김소연 씨가 각각 수상했다.

대학·일반부는 종합대상(국회의장상)에 가야금병창 부문 정운서 씨가 선정됐다.

한국전통문화연구회 황승욱 이사장은 “관악, 현악, 가야금병창 세 영역에서 차세대 국악 인재들을 선발하고, 국악의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대회다”며 “최상의 기량을 갖춘 수상자들이



이 앞으로 전통예술계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 예술인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인권을 잇다, 평화를 품다’

광주평화포럼, 10월2일까지 시민강좌

인권과 평화는 상호 보완적 관계다. 인권 없는 평화, 평화 없는 인권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을 잇다, 평화를 품다’를 주제로 한 '2024 평화인권시민학당'의 시민강좌가 열린다. (사)광주평화포럼(이사장 김완)은 10월 2일까지(오후 4시) 예술이 백그라운드에서 역사, 강연, 노래, 시 등을 모티브로 다채로운 강연을 펼친다. 마지막 10월 20일은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사유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답사가 예정돼 있다.

오는 6월 5일에는 김봉규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제노사이드의 기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어 6월 19일에는 주진오 상명대 명예교수가 '공공역사와 꿈꾸는 역사'를 강연하고 서은영 하동기예탁 대표가 국악 공연을 펼친다.

7월 10일에는 조성환 원광대 교수가 '동학의 인권관과 21세기 신문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박종화 민중음악가가 노래 공연을 한다.

7월 24일에는 박찬호 사진작가의 '사진으로 살펴 본 인권 이야기'가 예정돼 있으며 백애송 시인

의 시낭송이 진행된다. 이밖에 '평화, 그림적으로 듣는 꽃말머니'(8월 14일, 권운덕 동화작가), '미래를 살만한 삶으로 만들기 위하여'(9월 11일, 서영숙 한국이주여성 유권자연맹 광주지부장), '고전에서 배우는 평화의식'(9월 25일, 이화서원 대표), '조선 후기 '인물서동이론'의 전개'(10월 2일, 백승중 서강대 명예교수)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2일에는 주요섭 생명사상연구소장이 '생명운동과 전환운동'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10월 20일(오전 9시)에는 박미옥 광산구의회 의원과 함께 어등산 의병전적지와 운상원 생가 등 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김완 광주평화포럼이사장은 “지금 이 시간도 세계 도처에서 국가간의 전쟁, 분쟁으로 학살과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전지구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양성 있는 다문화 사회로 가자~

광주문화재단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성료...휠체어 등 접근성 높여

“다양한 우리, 다가지 즐기자”를 주제로 진행된 광주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행사가 최근 성료했다.

“다양한 우리, 다가지 즐기자”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UN이 지정한 문화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사회의 1층 내외부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또한 '문화다양성' 분야인 인권, 청소년, 대안문화, 환경분야와 '다문화' 영역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들도 짜여졌다.

특히 현장에 유아차, 휠체어, 수어통역사 등을 배치해 모두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대화용기, 광목현수막을 사용해 친화적 행사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문화재단은 임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아름다운가게와 광주문화재단이 함께하는 나눔바자회'를 통해 판매된 수익금 300여만원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소외이웃을 돕고 환경활동을 펼치는 풀뿌리 단체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노회용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다문화 시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문화다양성 사업을 매개로 소수문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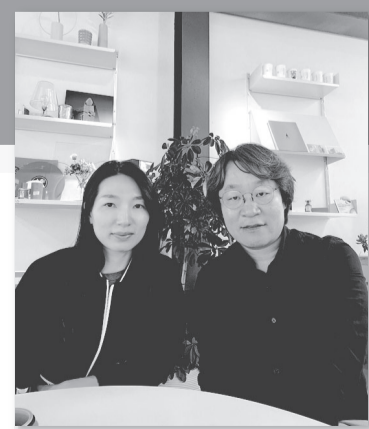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